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적 적용*

이주희**

이 연구는 지난 2018년 12월 퀘백의 대표적인 노동연대기금인 캐나다 제 1노총 퀘백노동총연맹(FTQ)의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제 2노총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FondAction)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퀘백지역의 성공적인 노동연대기금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한다. 한국에 노동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재분배의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노동친화적인 직접투자의 목적으로 모아진 경험은 부재하다. 인내자본으로서의 퀘백 지역 노동연대기금은 보통 투자하는 기업과 5~7년 정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노동연대기금이 추구하는 금융의 민주화는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노동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등을 투자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투자되는 기금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회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퀘백과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이 다른 만큼 제도의 이식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이 통제하는 기금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기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고하고 집중된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 권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주제어: 연대, 노동운동, 사회적 경제, 인내자본, 사회적 대화

* 이 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서 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기업 간, 노사 간, 노노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저성장에 그 뿌리를 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의 몫을 증가시킴으로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간단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소득 분배율은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니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을 유발해 온 임금 계약 외의 다른 부문에서의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태일, 2018). 문제는 지나치게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인적자원, 물적 자본상의 격차가 불공정 거래를 유지, 존속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단순히 노동자 간 소득 불평등만 확산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재능과 자원도 엄청나게 낭비한다(Wright, 2010). 유사한 역량을 가지고도 제한된 대기업 일자리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재능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 역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규모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10% 안팎의 소수 노동자만 조직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서구 조정시장경제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이 보유한 경제적 조율능력과 새로운 사회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양극화를 지속시키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소속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비록 본질적이긴 하나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협소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고용위기 및 저성장의 폐해를 노동조합운동이 보다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자본을 보다 민주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캐나다 퀘백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노동연대기금의 형성이 그 대표적인 사

레이다.

퀘백의 노동연대기금은 비록 당시 급박했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자본에 대한 일반 시민의 통제력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이 단순한 부, 혹은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경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노동연대기금의 도입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크며 올바른 노동 및 환경기준을 가진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고 조직노동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된 상징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직노동자의 은퇴 이후 생활자금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기준 확보와 확산,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의 기초가 되는 교육 및 훈련제공 등 다차원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 연구는 지난 2018년 12월 퀘백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연대기금 2곳, 즉 캐나다 제 1노총 퀘백노동총연맹(FTQ)의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제 2노총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FondAction)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퀘백지역의 성공적인 노동연대기금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한다. 한국에서도 노동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재분배의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노동친화적인 직접투자의 목적으로 모아진 경험은 부재하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이며 약탈적인 사모펀드의 확장 등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노동의 교섭력에 미친 치명적인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노동친화적인 투자기금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해외제도의 이식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차원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된다면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를 제어하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연구의 배경

1. 금융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권력 강화

허구적 상품으로서의 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폴라니(Polanyi [1944]1957)의 해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민주화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은행의 대규모화, 집중화로 거대 금융기관이 탄생하면서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더욱 위험한 투자가 만연하는 한편,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경영관리기법이 확산됨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연구개발 지원은 크게 축소되어갔다. 이렇듯 편향된 금융체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인수합병 이후 가계저축은 거대 금융 및 보험회사로만 흐르게 되었는데, 이는 다시 단기적 이윤극대화만을 최대의 경영목표로 삼는 대규모 기업에 투자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가계저축이 거대한 영리형 기금으로 모아짐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었고, 환경 친화적 기업, 새 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하이테크 기업,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구조적인 과소투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Block, 2015).

이러한 금융권력의 집중화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 단기적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인내자본은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skice, 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두 유형 분류에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보다는 조정시장경제(Cordinated Market Economies)에서 더 잘 발견되는 자본투자의 방식이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 유형별로 개별 제도들의 정합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노동시장 역시 경쟁적이며 유연하다. 조정시장경제 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은행을 통해 인내

자본의 성격을 가진 장기적인 기업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기업이 성장 동력을 축적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보호가 되는 장기 일자리에서 숙련 축적의 유인이 매우 크게 된다. 기업에서의 산업 시민권의 보호, 공동결정제도를 통한 권력의 분담도 이런 체제와 제도적 정합성이 높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이 노동이 배제된 논의라는 비판(Howell, 2003)도 존재하며, 유형 내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에 대한 지적(Herrigel and Zeitlin, 2010)도 계속되어 왔고, 국제적 자본이동, 적대적 인수 합병이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인내 자본 유지 조건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다양성 유형에서 유형 내 금융자본의 성격 차이와 노동시장 특성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자본시장 육성을 지향했지만 주식시장은 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해 성장하였고, 은행은 안정성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기업금융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기업은 주로 사내유보이윤과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은행에 의존적인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출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신정완, 2005). 자본시장에서도, 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약자로 존재한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인내 자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내 자본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기술수준이 높은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융체제와 대규모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기반 한 다양한 사회적 기제를 통해 경제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중의 하나가 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 있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만들고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Wright, 2010:222-224).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개발자본과 연대금융 등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에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이정민, 2018), 퀘백의 노동연대기금은 중소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역할을 중시한다(QFL(2007) p13; Wright(2010) p227에서 재인용). 이처럼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가 꼭 대규모 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안정되고 숙련된 노동자의 존재는 경제 전체의 활력과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은 전문성과 인내자본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파
트너기업들이 여러 도전을 이겨내는 동안, 우리는 인내자본 - 그들이 현대
화를 시도하고 확장하는 동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기다
려 줄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제공한다...우리 기금의 목적과 규모는 충분해
서,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힘든 시간을 건디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다”¹⁾

금융의 집중화로 인한 비민주적 투자결정을 제어하고, 금융화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첫 걸음은 다수의 중-저소득 노동자
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비영리 소매금융기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Block, 2015). 이들이 민주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 및 노동친화적인 기
업 활동을 중시하는 투자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을 활용하여 기업의 행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추구가 가능해진다. 물론 노동연
대기금과 같은 기금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는 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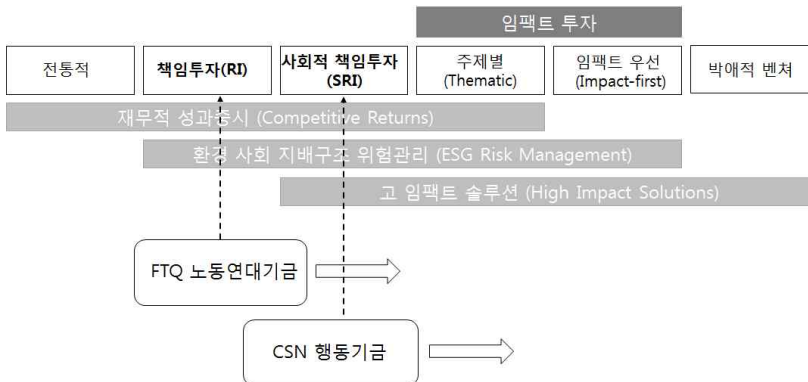
1) 노동연대기금 이사회 의장인 앙리 마세(Henri Masé)는 이러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
고 있다(QFL(2007), p3; Wright(2010), p.227에서 재인용): “우리에게 투자란 질 좋은 일자
리에 초점을 맞추어 집합적 부(wealth)를 창출해내는 것이다...내가 미국의 사적 펀드가 열
중하는 투기성이 짙은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사적 펀드는
투자하는 기업의 생존 문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관심사는 빠른 이윤확보이다.
우리가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사적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우리
의 사회적 가치나 사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미약하겠지만, 실현가능한 변화를 통해 추가적인 개혁의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이 통제하는 기금은 이러한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기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고하고 집중된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 권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투자로서의 노동연대기금

인내자본으로서의 퀘백 지역의 노동연대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지향하는 자본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의 경우 사회적 문제나 환경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책임 투자는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하고자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가치, 특히 환경과 사회 전반, 그리고 기업조직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함께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한다(권재열, 2016: 325).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FTQ의 노동연대기금과 CSN의 행동기금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책임투자를 추구하는 자본이다.

〈그림 1〉 투자방식별 특성 요약



자료: Pierre-Laurent Macridis(Participations majeures)와의 면담, FondAction, CSN, 2018. 12. 14.

장기적으로 퀘백의 두 노동연대기금이 시도하고자하는 임팩트 투자는 21세기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무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장석인 외, 2017). 이는 공공성이 큰 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약정된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곽제훈, 2014: 56)과는 다른데, 사회성과연계채권이 투자수익을 측정 가능한 사회적 성과와 연동시키는 보다 협소한 의미의 사회적 금융제도인 반면, 사회적 영향 투자는 처음 설계부터 사업 목적에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킨다. 임팩트 투자는 협동조합이 발전한 유럽 대륙지역과 캐나다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영미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유현중, 2015).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음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부의 보증이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을 뿐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신효진·이상훈, 2018; 조영복·신경철, 2014). 이처럼 민간재원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회적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과는 달리 인내자본 공급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조혜경, 2018).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영리형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이 서구에서 등장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는 법 제도의 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김학실, 2017; 이정민, 2018). 따라서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뒤쳐진 상태이다.

퀘백의 노동연대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발전시켜온 과정은 그런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 사회적 금융 전반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제도의 도입은 공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처한 맥락적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 퀘백 노동연대기금제도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특성, 도입의 계기,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의 대응, 경제와 일자리에 미친 영향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III. 퀘백의 노동연대기금

1. 퀘백의 정치경제적 특성

퀘백은 인구수(790만 명)보다 더 많은 협동조합원(800만 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8~10%를 차지하는 캐나다의 한 주이다. 퀘백의 변화는 1960~70년대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해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선포하는 등 주요한 정치, 경제, 문화 개혁조치가 실시된 ‘조용한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변화는 1980년대 초반, 고실업과 경기침체를 계기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공격과 더불어 나타났다. 시장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퀘백은 시민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김창진 2015). 1995년 설립된 사회적 경제의 연합체인 산티에(Chantier)는 초기에는 단순한 연대조직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상설기관화 되었다(이수연, 2013).

퀘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퀘백 주 정부의 경우 보수정권 자체가 1980년 이후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 보수당(the Union Nationale)의 패배 이후 보수 정당은 1980년대가 끝난 후 퀘백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으며, 중도 좌파로도 분류가 가능한 좀 더 현대적인 보수정당들(the Action démocratique du Québec (ADQ) and the Coalition Avenir Québec (CAQ)도 정권을 잡지 못했다. 따라서 퀘백에서는 주로 사회민주주의 정부들(CCF, NDP, PQ)이 집권하였으며(Arsenault, 2016), 그로 인해 퀘백 지역의 연금정치의 성격도 매우 진보적이었다. 예를 들어, 퀘백 연기금의 운영도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과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진다(전창완 2007).²⁾

2) 캐나다 연금(Canadian Pension Plan) 운용회사(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의 이사회는 금융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엘리트 이사로 채워져서

이러한 좌파 정부의 장기 집권과 퀘백 노동운동의 산별 교섭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주로 기업 단위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다. 따라서 퀘백 노동운동의 중앙집중도는 서유럽이나 북유럽 노동조합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러 총 연맹과 많은 독립 노동조합 중 1997년 기준 제 1노총인 퀘백노동총연맹(FTQ)은 전체 조직노동자의 37.3%, 제 2노총인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은 23.9%를 조직하고 있어 이 두 노총이 조직노동의 과반 이상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전체 노동조합 조직율은 41.4%으로, 약 10% 안팎인 현재 한국의 조직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에도 평등지향적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운동단체가 존재하였다. 공공부분 교섭구조는 좀 더 집중화되어있는데, 비조직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 법령이 존재하였으나 점차 축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³⁾(Arsenault, 2016).

2. 퀘백노동총연맹(FTQ)의 노동연대기금

노동연대기금을 만든 퀘백 주의 가장 큰 노동총연맹(FTQ)은 설립 초기 미국의 노동총연맹(AFL-CIO)소속이었다.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과거로부터 FTQ의 노동운동이 급진적이라기보다는 미국식 경제주의적,

연기금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평가에는 무관심한 반면, 캐나다 퀘백 주의 퀘백 연기금(Quebec Pension Plan(QPP)) 이사회에는 FTQ 대표자가 참여하여 금융수익성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육성,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대 금융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전창환, 2006). 퀘백 연기금(QPP)의 운영은 퀘백저축투자금고라는 주 차원의 공적 금융기관이 담당해 왔는데, 이 기관은 적어도 설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익성 뿐 아니라 퀘백 주의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하였다. 퀘백의 저축투자금고 이사회에도 노조 지도자가 포함되어있어, 사회 모든 영역의 대표자들, 즉 연방정부, 주 지방정부, 노조, 협동조합, 금융계의 합의기구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조정시장경제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인이다(전창환, 2007). 그러나 영미형 자유시장 경제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퀘백 저축투자금고도 수익성을 공익성보다 훨씬 더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사회에 FTQ 대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을 대체해 민간기업 이사들이 증가하였다(전창환, 2016).

3) 2002년 18개 법령이 약 75,831명의 노동자를 보호해 주었으나 2015년에는 15개 법령으로 줄어들었다(Arsenault, 2016).

혹은 실리주의적(pure and simple, bread and butter) 노동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FTQ는 1980년대 초 실업률이 15.5%, 이자율이 20%가 넘고 중소기업에서의 자본 부족이 파산과 해고를 낳고 있었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연대기금을 제안함으로써 노조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장소는 퀘백 정부가 실업과 예산 적자라는 두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대표자회담이었다(ILO, 2003). 퀘백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부터 단순히 조합원만을 위한 노동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조합원을 잃는 어려운 경험과 함께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를 살릴 수 없다면 노동조합 스스로 나서서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FTQ는 노동연대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도 건설업 일자리에 투자하려고 시도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FTQ는 사회적으로 참여해서 경제에 관여하는 의미 있는 행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성, 백인, 정규직 등에 한정된 운동으로 고립될 것인가의 분기점에서 전자를 선택하게 된다.⁵⁾

노동연대기금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동운동을 펼쳤던 FTQ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기금의 기획 초기에는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소속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방법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다수 노동자가 기금을 만들어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TQ는 기금의 설립 초기에 사측에게도 참여하라고 권하였지만 사측의 거부로 이는 시행되지 못했다. 사측은 기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체교섭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노동자 역시 초기에는 “노동자이거나 보스(boss)여야지 어떻

4) Nancy Neamtan 전 Chantier 대표와의 면담, Robin Des Bois, 2018. 12. 12.

5)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Louis Neamtan-Lapalme은 Nancy Neamtan의 아들이며 노동연대기금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Daniel Bourcier는 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투자 관련 사회적 감사(social audit) 설명을 맡았다. 이 면담내용은 두 명의 면담자가 상호 보완하면서 동시에 설명해 주었으므로 두 명의 이름을 함께 적었다.

게 노동자이면서 보스(boss)가 되는가”라는 입장 하에 참여에 회의적이었다.⁶⁾ 따라서 1983년 6월 법이 제정된 이후 12월까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 끝에 12월 노동자가 이 안을 두고 투표하였을 때는 절대 다수인 80%가 찬성하였다고 한다. 초기 반대가 심했으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이후 노동자의 노후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초기에 반대했던 노동자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⁷⁾

FTQ는 퀘벡 주정부 재무장관이 기금 구성에 유리한 세제 혜택 조항이 담긴 법률 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각각 1,000만 달러씩의 기본 자금을 받아서 1983년 노동연대기금을 탄생시켰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갖춘 노동총연맹이 기관투자가가 되는 유례없는 실험이었다. 이 기금으로 FTQ는 노동자가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노동연대기금의 재정적 성과 못지않게 노동운동이 퀘벡의 경제발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김창진, 2015). 노동연대기금은 퀘벡 중소기업에 직접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자본투자 연금기금으로, 신생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사모투자를 포함한다(ILO, 2004). 노동연대기금이 캐나다 최초의 노동자 기금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벤처캐피탈 기금이 되는 데에는 국가 재정정책과 연동하여 이 기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큰 촉매제가 되었다.⁸⁾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연금을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금을 보완하여 노동자를 3중으로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3년 시작 시 정부 연금에만

6) 당시 FTQ 위원장은 한 기자와의 대담에서 기금이 얼마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1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820억 2400만원)라고 답변하였을 정도로 이 기금이 이처럼 확장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5월 말 기준 이 기금은 14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2조 1,600억원)의 규모로 확장되었다(Nancy Neamtan 전 Chantier 대표와의 면담, Robin Des Bois, 2018. 12. 12.).

7)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8) Nancy Neamtan 전 Chantier 대표와의 면담, Robin Des Bois, 2018. 12. 12.

의지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노동연대기금의 투자자는 은퇴하거나 아니면 결혼, 주택 구입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⁹⁾

1) FTQ 노동연대기금의 구조

2018년 5월 말 기준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총 투자자 수는 667, 000명이었는데(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전체 투자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중은 54%로 노동운동에 확고한 기반을 둔 기금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전체 투자자 중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37.3%에 이르지만, 30대는 15.2%, 40대는 23.5%로 30~50대의 중장년층이 투자자의 대다수를 구성한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7). 퀘백 지역의 선도적 발전자금으로서 노동연대기금 투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매년 투자액의 30%이며, 1인당 투자한도액은 5,000 달러이다. 2010년 주 정부가 세금공제 혜택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경영계가 노동연대기금이 기업의 주요 투자자로서의 장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기금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을 구원하고 기업 측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돌아서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⁰⁾

노동연대기금 조직은 노동자 자원봉사자(Labor Representatives(LR)) 담당본부, 교육훈련본부, 사회적 감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브로커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자원봉사자가 기금을 판매하며, 노동연대기금이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을 소속 기업에 보상한다. 2017년 기준 1,702명의 자원봉사 지부(지역)대표(Local Representatives)가 이 기금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총 8,525일을 작업장에서 기금을 홍보하기 위해 활동하

9)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10)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고 있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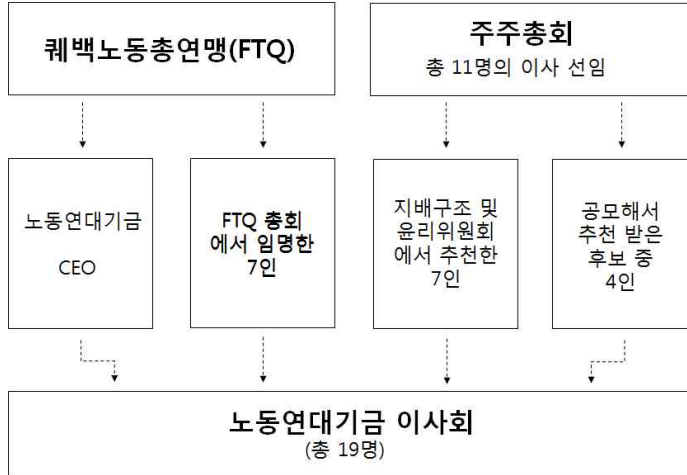
노동연대기금의 교육훈련본부에서는 단순히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 한 회사 발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문을 만드는 한 제조업체에 제조과정과 그와 관련된 여러 재정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듣고 노동자가 좀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형 제조방법을 기업 측에 제안할 수 있다. 노동과정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켄백의 노동조합들은 기금 관련 투자나 노후계획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¹¹⁾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투명성을 위해 사회적 감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고유한 관점을 유지하고, 투자 대상 기업과 최적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대화의 과정을 중시한다. 경영이나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노동환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김창완, 2015). 그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경영 스타일, 사용자(기업 대표) 프로파일,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환경법과 관련된 노동연대기금의 원칙을 존중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ILO, 2004). 노동연대기금은 초기 투자 시부터 노동자가 해당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파악하는데, 특히 안전과 건강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와 노동자와 만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상황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만일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면 투자를 포기한다.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약 3년 후 2번째 사회적 감사를 실시하며, 약 7년 후 회수(exit) 감사를 실시하는데, 혹시 자본금을 회수하였을 시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퇴거를 결정한다.¹²⁾

11) Louis Neamtan-Lapalme과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12)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그림 2〉 노동연대기금의 이사회구조



자료: “Fonds de Solidarité, FTQ: a labor-sponsored fund” 2019.12. 13. FTQ 제공자료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연대기금의 이사회에 FTQ가 참여하지만 독립이사들의 역할도 크다. 최근 이사회 구조가 변화하기 이전에는 총 17명의 이사 중 10명의 이사가 FTQ에 의해 임명된 소속 노조 위원장이었다. 현재의 지배구조에서 FTQ의 대표성이 축소된 것은 건설 부문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에 대한 투자 압력행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14년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FTQ에서 임명하는 이사의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고, 주주가 직접 선출하는 이사의 수와 사외이사가 각각 2명과 4명에서 4명과 7명으로 증가하였다(Fonds de Solidarité, FTQ(QFL), 2014). 이사회에는 따라서 노동조합 외에도 재계,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재정 전문가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다.¹³⁾

13)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2) FTQ 노동연대기금의 투자방식 및 성과

2018년 5월 말 기준 노동연대기금의 순자산은 14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2조 1,600억원)로, 매우 빠르게 수익률이 증가해 왔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익률 변화를 살펴볼 때, 2000년대 초반과 2008~9년 금융위기를 제외한 수익률은 평균 5~1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0; 2017).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2018년 5월 말 기준 총 194,7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인내자본으로서의 노동연대기금은 보통 투자하는 기업과 5~7년 정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정관상으로 목표 지분은 10~40%이지만 보통 15~20%정도의 지분 확보가 대부분이다. 노동연대기금은 개별 기업의 지분을 절반 이상 차지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회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노동환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지역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의 분쟁도 조정한다. 필요한 위원회에 노동자를 참석시키고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생기면 시정토록 한다(김창완, 2015).¹⁴⁾

노동연대기금 이사회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수익성 극대화 논리를 우선시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특히 낙후된 지역과 빈곤지역, 경기침체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연대적 금융을 지향한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경시하지도 않는다. 자산의 과반 이상을 퀘벡 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기금에의 투자를 통해 지방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전창환, 2006).

12. 13.

14) 이 내용은 김창완(2015) 저서에 포함된 노동연대기금 투자개발전문가 Daniel Bourcier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인용한 것이다. 인터뷰 일시는 2013년 2월 15일이다. 2018년 12월 13일 저자가 동일인물인 Daniel Bourcier를 면담했을 때에도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노동연대기금은 전체 자금의 65%를 퀘백지역 경제에 투자한 후 나머지는 정부 채권 등에 투자하는 등, 안정되고 다변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노동연대기금이 투자처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기금을 찾을 수도 있다. 투자 결정에 정부가 관여하기도 한다. 광역 펀드 16개와 73개의 소규모 지역 펀드가 있으며, 지역투자 기금의 경우 시 정부가 후원자(sponsor)가 되어주기도 한다. 노동연대기금이 투자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 담배, 무기, 포르로 관련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위험을 전가하는 사업에도 투자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투자도 하지 않는다.¹⁵⁾

또한 노동연대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자이다. 2009년 기준 퀘백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0.083%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는 캐나다 전체평균 0.033%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3). 이로 인해 노동연대기금은 벤처자금펀드로도 여겨진다. 노동연대기금은 초기에는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다가 2005년부터는 최대 자산 1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도 투자한다고 한다(이수연, 2013). 따라서 노동연대기금의 투자처는 생명과학분야, IT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청정기술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3). 이 중에서도 노동연대기금은 생명과학분야와 항공우주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우주산업의 하청회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핵심 제조업체의 주 공급업체가 노동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중요한 로봇회사에도 투자한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4).

노동연대기금의 운영체제를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노동자 자원봉사 지역(지부) 대표와 퀘백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지점

15)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노동연대기금의 자본금을 축적하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노동연대기금의 투자자 중 과반 이상은 연봉 6만 달러 미만을 버는 중간 계층이다. 이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노동연대기금에 투자함으로써 귀중한 추가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노동연대기금은 모아진 자본금의 2/3 가량을 무담보 위험자본의 형태로 퀘백 경제에 투자한다. 투자의 목적은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유지, 보호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도 투자를 진행한다. 3단계에서는 노동연대기금의 투자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다시 자본금으로 더해져서 재투자된다. 2014~2015년에 창출된 총 수익은 992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마지막 4단계로 노동연대기금은 주주가 은퇴하거나 중요한 자금필요상황에 닥쳤을 때 소유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한다. 새로운 주주가 계속 자금을 기여하기 때문에 노동연대기금은 계속 자본금을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퀘백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행동이 가능해진다(Fonds de Solidarité, FTQ, 2015).

FTQ의 노동연대기금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위협에 처했을 때 개방적으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했던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연대기금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를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학생 기금을 통해 청년들이 FTQ에서 일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 협동조합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하우스도 지원한다. 퀘백 주 이외의 캐나다 다른 지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연대기금의 벤치마킹을 위해 많이 방문하였으나, 실제로 노동연대기금과 같은 기금이 만들어져 실행되고 있는 곳은 없었다고 한다. FTQ의 노동연대기금 담당자들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이 기금이 어떻게 잘 변형하여(translate) 도입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 결론지었다.¹⁶⁾

16) Louis Neamtan-Lapalme과 Daniel Bourcier와의 면담, Fonds de Solidarité, FTQ, 2018. 12. 13.

3. 퀘백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

FTQ 노동연대기금의 성공에 힘입어 퀘백의 제 2노동단체인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은 1996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참여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행동기금(FondAction)을 만들었다.¹⁷⁾ 이 역시 5~7년간 상환기간을 두는 일종의 인내자본이다. CSN이 후원하는 행동기금은 노동자 참여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치를 두는 사업체에 투자한다(김창진, 2015).

CSN은 1930년대 가톨릭 사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FTQ가 미국의 실용적, 경제주의적 노동운동과 유사한 데 반해, CSN의 노동운동방식은 보다 더 급진적이다.¹⁸⁾ 1980년대 초 경제위기로 FTQ가 노동연대기금 만든 후, CSN에는 다른 차원의 기금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퀘백 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행동기금 관련 법안을 1996년 마련할 수 있었다. 2018년 현재 CSN의 행동기금은 20억 달러의 자산과 함께 14만 명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행동기금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은퇴 이후 퇴직기금 마련이 중요한 이슈였지만, 노동연대기금보다 좀 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퀘백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총 투자액의 30%가 사회적 경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증권시장, 채권시장, 조건 갖춘 일반 기업에도 투자한다. 행동기금은 재정적 수익률만 평가하지 않고 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노동자에 유리한 지역사회발전, 또 환경

17) 행동기금 외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일자리기회 기금(The Working Opportunity Fund)이 1992년에 조성되어 46만명의 피고용자를 대표하는 7개의 노조가 소유한다고 한다. 조합원은 5만명, 자산은 4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2 정도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중소기업에 투자되었다(김창진, 2015).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도 노동연대기금과 행동기금이 두 가지 기금만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이처럼 성공적인 기금이 없고, 잘 되지 않아 많이 종료된다고 한다(Minh Nguyen과의 면담, FondAction, CSN, 2018. 12. 14).

18) FondAction 건물에는 상호공제 형식의 금융기관인 테자르랭 연대기금을 포함,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단체 많이 들어와 있었다. 행동기금의 근무자 수는 180명이다.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행동기금도 모두 인내자본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가이드라인 방식에 부합하는 투자만 한다.¹⁹⁾

CSN에서도 행동기금을 제안할 때 FTQ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반대가 심하여서 약 10년간의 토론을 통해 조합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CSN 소속 조합원들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었을 때의 포섭에 대해 우려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먼저 시작된 FTQ의 노동연대기금이 자본을 우선시하는 기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퀘백당 정권은 기금 마련에 호의적이었으며 기업가들도 FTQ 노동연대기금의 성공적 운영 이후 두 번째 노동자 기금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기금의 설립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퀘백 주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있었으나 수령 받는 액수가 매우 적었고 회사 연금은 더욱 더 미미한 액수였다. 정부의 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개인 연금기금으로서의 행동기금은 시중 은행의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부족한 기존 연금을 충분히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²⁰⁾

FTQ의 노동연대기금과 CSN의 행동기금이 경쟁관계에 있음은 사실이나, 이 두 기금의 투자 지향은 약간 다르다. 노동연대기금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 하고 유지하고자 투자를 한다면, 행동기금은 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투자까지 실시한다. 책임 투자는 FTQ 노동연대기금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기금에의 투자를 하지 않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방식의 투자이다. 사회적 책임 투자는 CSN의 행동기금이 추구하는 투자 방식으로, 네거티브 및 파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독려한다. 단지 문제가 있는 기업에의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임금 수준이 높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처로 선정하는 것이다. 제 1기금인 노

19) Minh Nguyen(Responsable de la recherche)와의 면담, FondAction, CSN, 2019. 12. 14.

20) Minh Nguyen(Responsable de la recherche)와의 면담, FondAction, CSN, 2019. 12. 14.

동연대기금도 향후 이러한 방향에서 투자하려고 노력 중이다. FTQ 노동연대기금의 세제 혜택이 30%였던 데 비해, CSN의 행동기금은 35%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행동기금의 투자가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연대기금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개인별 투자액 한도는 약 5천 달러이다. 사용자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경우에도 1년에 5천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²¹⁾

행동기금은 이후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 그에 기초하여 투자하는 사회적 영향 투자까지 시행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염된 토질 재건 프로젝트이다. 비록 행동기금이 금융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투자기금이 전혀 아니지만, 그 수익수준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행동기금의 수익률은 노동연대기금과 같은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에 속한 기업이 더 잘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 속도는 노동연대기금보다 행동기금이 더 빠르다.²²⁾ 현재 행동기금은 신재생 에너지, 토질 재생 등과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²³⁾

IV. 한국 적용방안

1. 한국의 노동기금 현황

비록 퀘백의 노동연대기금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모집한 기금이 존재한다. 노동기금은 1996년 말 경제

21) Pierre-Laurent Macridis(Participations majeures)와의 면담, FondAction, CSN, 2018. 12. 14.

22) 행동기금은 투자하기 전에 핵심 영향(key impact)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하는가, 노동자가 경영참여를 하는가, 고용주가 노동자 퇴직 준비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 등. 이러한 검토를 위해 약 144개의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경영활동 매트릭스(matrix)를 활용한다.

23) Pierre-Laurent Macridis(Participations majeures)와의 면담. FondAction, CSN, 2019. 12. 14.

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자 간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최초로 제기한 곳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으로, 그 외 여러 연맹과 산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노총이 2004년 단체교섭에서 제기한 노동기금(사회공헌기금)은 노동운동이 기금 조성을 통해 비정규직과 차별문제를 사회적 쟁점화²⁴⁾ 하는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이상학, 2004)

완성차 노조가 기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로, 여러 논란 끝에 노사 간 동일액을 출연하는 방안이 무산되고 회사 순이익의 5%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표 1>에 나타난 2000년대 초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노동기금 중 유일하게 사측만이 출연주체가 된 사례이다. 이에 반대한 사측에서는 대공장 기금의 설득력을 위해 노조도 임금인상의 일부를 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편 노동운동 측에서는 “정규직 대공장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가 책임지는 꼴,”이며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준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대공장 노조들이 기금을 내놓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조건준, 2004). 보건의료노조 역시 오랜 기간 노동기금의 모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해 왔던 2000년대 초 이후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시정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환경이 보수화되고 산별교섭이 소강상태로 진입하면서 노동기금은 오랜 기간 추가적인 발전 동력을 얻지 못했다.

24) 실제로는 기금조성 목적이 연맹에 따라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4사 노조는 자동차산업발전, 산업 내 미보호 노동자 교육과 숙련향상 등을, 보건의료노조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복지향상, 교육훈련과 복지회관 건립 등을, 화학섬유연맹은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공헌과 관련된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만을 위해 기업이 특별히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오도되는 측면이 있었다(프레시안, 2004. 6. 8).

〈표 1〉 민주노총 연맹별 연대기금 방침과 내용, 2004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자동차 4사노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목적	◦ 비정규 복지증진 및 직업훈련 ◦ 조합원 고용안정	◦ 취약노동자 보호	◦ 산업 내 미조직 노동자 고용과 숙련향상 기여 ◦ 산업발전	◦ 고용안정 ◦ 비정규직 복지 ◦ 교육훈련 ◦ 복지회관 건립	◦ 지역사회 공헌
출연주체	노·사	노·사	사	노·사·정	사
운영주체	노사공동 운영		노사공동 기구	노사공동 운영	
조성방안	◦ 2004년 임금인상분 중 일정액 적립 ◦ 조합원 조성기금분 만큼을 기업에게 요구	◦ 2004년 임금인상 일정액과 사측의 동일금액을 공동출연	◦ 완성차업체 순이익의 5%	◦ 2004년 임금인상분 총액의 1%와 사용자와 정부에게 해당금액 요구	◦ 총 매출액 대비 0.01%
추진방식		개별교섭	개별교섭	산별교섭	공동교섭
조합원 수		10만명		4만명	5천명

자료: 민주노총(2004), 『연대기금 조성방안과 추진현황』 토론회자료집, 인수범(2005)에서 재인용.

노동기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2017년 금속산업 현대, 기아차 노조는 이전과는 달리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5,000억 원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제안하였다. 노조와 회사가 각각 2,500억 원씩 출연하여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하자는 것인데, 사측이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불하면 이 중 일부를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크게 반발

하였다. 기아차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연대기금 조성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으나 내부 이견으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고 한다(서울신문, 2017. 6. 20). 보건의료노조도 50만 일자리 만들기 제안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부를 양보할 것을 선언하였는데(이주호, 2017), 2017년 약 5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돕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매일경제, 2017. 6. 17).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2018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출범시켰다. 이 재단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수행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산별노사합의에 따르면 노동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0.3~0.6%를 제공하며, 사용자도 유사한 금액을 출연한다고 한다(참여와 혁신, 2018. 10. 4). 또한 2018년 9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사측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연구사업, 금융권 은퇴자 재취업 지원 사업, 청년, 비정규직 단체 직접 지원사업, 저임금 노동자 대상 재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임금 총액의 0.4%씩 3년간 6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다(매일노동뉴스, 2018. 6. 7.). 2019년 1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보다 체계적으로 소외된 노동인구를 위한 복지 및 장학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²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대위는 이미 지급된 1,600억 상당의 성과액을 환수하여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 5곳의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미

25) 이 절의 내용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홈페이지 <http://solidarityfund.or.kr/>에 적시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은 사회적 격차 완화로, 비정규직과 저소득노동자 보호,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공공생연대 장학사업,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대출, 철도역사 내 사회적 공간조성사업 실시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 초 이후 지속되어 온 다양한 노동기금은 정규직 조직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기초적인 책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출연 주체는 노와 사, 혹은 노사정이며, 드물게 사측에게만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동운동만 기여하는 기금은 없었다. 한국과 같이 약한 조직력과 압도적인 기업 해게모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측만 기여하거나 사측과 공동으로 기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측은 기금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에 대해 일종의 면책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²⁶⁾ 둘째, 시장중심적 기업 운영 방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활동이 위축되어 기존의 경제권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전달체계의 문제도 발견된다. 모아진 기금의 액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일부 기금의 경우 모집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여진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 및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위에서 언급한 출연주체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금의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다. 주로 한시적인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기금 기여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투명하므로, 지속적인 기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또한 동시에, 복지를 넘어 보다 노동친화적인 경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6) 실제로 자동차 기업들이 사회공헌기금에 합의한 이후에도 전국의 중소부품업체의 노사 모두 부품의 가격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조건준, 2006).

2.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 도입을 위한 과제

기존 한국 노동기금의 출연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정치사회적 맥락이 퀘백의 노동연대기금과 다른 만큼 도입을 위한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연대기금은 한국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정치적 환경을 가진 퀘백에서도 극심한 경제 위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비록 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도 현재 한국의 성장률과 실업률, 기업도산률 등은 퀘백의 1980년대 초보다 현저히 양호하다. 단,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 악화되고만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퀘백의 또 다른 차이점은 사회적 대화의 발전 수준이다. 퀘백에서 노동연대기금이 도입된 원인 중 하나도 지역 경제주체들과의 대표자회담이라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문제인 정부 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전 노사정위원회의 담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갈등적인 여러 이슈를 단기간에 처리하려다 보니 민주노총의 불참 등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성화는 노동연대기금의 도입과정에서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들이 단기간에 조율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노동조합원 역시 기금을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노후자금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상대적 규모라는 차원에서도 한국과 퀘백의 격차는 매우 크다. 퀘백에서는 노동연대기금이 사회적 경제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문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퀘

백의 경우 노동연대기금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한국의 노동기금도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이에 특화된 금융 인프라와 중개기관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인 만큼, 노동기금의 투자 전환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공유한다면 도입에 필수적인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여러 노동기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퀘백의 노동연대기금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다. 노동연대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 두 곳의 노동기금만이라도 기금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데 동의해 준다면 시험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현재 기업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연대기금의 투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무금융 등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는 한편,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가지고 퀘백의 노동연대기금과 같은 사회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동연대기금의 시행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투자는 신중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노동연대기금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 퀘백의 경우 기금 수익에 대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모두로부터 세금 공제 형태로 매우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금이 처음 세워졌을 때 기금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도 받았다. 한국에서 노동연대기금이 만들어질 때에도 유사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규모의 현격한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민간 사회적 경제 부분의 자생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퀘백과 같이 노동자의 기여로만 기금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측의 기여도 받을 것인가? 퀘백 노동연대기금이 사측의 참여를 막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연대기금의 민주적 투자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

당 투자 한도를 정하였기 때문에 사측 역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의 차원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다.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경우 장단점이 존재한다. 기업이 기여할 경우 비록 총 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기여가 있는 만큼 당연히 지배구조 안에 대표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노동과 환경 친화적 평가에 기반 한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사측의 기여는 초기 자금 형성기에 일회성 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은 노동자나 일반인 투자자에 한정하여 지급된다. 사측은 또한 기금운영 및 홍보와 관련된 노동조합 조합원 혹은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노동자가 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한국의 노동운동이 노동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바 있으나, 이러한 기금이 지원하는 일시적인 정규직화나 복지제공만으로는 현재의 고용위기와 경기침체, 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퀘백의 노동조합이 노동연대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은 물론 노동자의 노후 생활안정까지 도모한 점은 한국 노동운동에 큰 시사점을 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요구가 항상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투자 없이는 고용도, 세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단순한 재분배에 대한 요구를 넘어 이러한 노동연대기금 형성을 통해 경제 체제 자체의 운영에 개입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노동운동도 각종 기금확보운동의 방향성을 투자 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퀘백의 노동연대기금은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 중-저소득층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추가적 연금 확보라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도 양극화 극복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생적 대안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거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집중된 자본력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은 인내자본을 통해 노동권과 안정된 수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노동운동 역시 조직화된 소수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과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로 양분시켰다. 노동연대기금이 추구하는 금융의 민주화는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노동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등을 투자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투자되는 기금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회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틈새적 전략”(Wright, 2010)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틈새가 과연 자본주의의 변혁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바로 그러한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한국의 노동기금을 퀘백의 노동연대기금과 같이 사회적 감사를 전제로 한 투자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본 투자자가 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에 친숙했던 퀘백의 노동자들도 오랜 논쟁과 숙려를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 단, 한국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또 분열된 노동운동을 통합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퀘백과 같은 노동친화적 사회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만큼 보다 민주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조적으로 저투자되고 있는 경제 부문에 인내자본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제훈(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2014(3), pp.55-74.
- 권재열(2016).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모델 모색”, 『증권법 연구』 17(1): pp. 319-328.
- 김창진(2015). 『퀘백모델: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고양: 가을의 아침
- 김태일(2018).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25(3): pp. 175-208.
- 김학실(2017). “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pp.27-61.
- 신정완(2005).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 구상”, 『동향과 전망』 65호, pp. 147-169.
- 신효진·이상훈(2018).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1(2), pp.73-108.
- 유현종(2015). “사회적 금융의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및 프랑스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2., pp.532-557.
- 이상학(2004). “양극화 시대의 노동운동, 갈길이 멀다”, 『노동사회』 제91호.
- 이수연(2013).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백의 사회적 경제: 퀘백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다양한 협동조합』 새사연 브리핑.
- 이정민(2018). “사회통합을 위해 해외 사례로 살펴 본 사회적 금융의 발전방안”, 『문화교류연구』 7(2): pp. 91-108.
- 이주호(2017).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일자리기금”발제문, 『노동사회』 제196호.
- 인수범(2005).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노동사회』 98호.
- 장석인·성연옥·임상호(2017). “사회혁신기업의 임팩트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0(2), pp.253-273.
- 전창환(2006). “연금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동향과 전망』 2월호: pp.211-239.
- _____(2007).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 문제점과 개혁방안”, 『경제

- 와 사회』 3월호: pp.73-98.
- _____(2016).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경제민주화”, 『동향과 전망』 10월호: pp. 46-78.
- 조건준(2004). “‘기금요구’ 독인가 약인가”, 『노동사회』 제90호.
- _____(2006). “기업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월간 복지동향』 92: pp. 23-25.
- 조영복·신경철(201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7(2), pp.105-133.
- 조혜경(2018).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협동조합네트웍』 75:pp. 23-45.
- Arsenault, Gabriel(2016). The Social Investment State and the Social Economy: The Politics of Social Economy Turn, 1996-2015”. Ph.D. Thesi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oronto.
- Block, Fred(2015). “Redefining Socialism: Karl Polanyi and the Democratization of Finance. Unpublished but revised version of “Democratizing Finance” in *Politics and Society*, 42(1): pp. 3-28, 2014.
- Fonds de Solidarité, FTQ(2010). *Annual and Sustainability Report*.
- _____(2013). *Annual and Sustainability Report*.
- _____(2014). *Annual and Sustainability Report*.
- _____(2015). *Annual and Sustainability Report*.
- _____(2017). *Annual and Sustainability Report*.
- _____(2018). *Fonds de Solidarité, a labor-sponsored fund*. FTQ internal document.
-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eds.(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igel, Gary and Jonathan Zeitlin(2010).“Alternatives to Varieties of Capitalism” *The Business History Review*. 84(4): 667-674.
- Howell, Chris(2003). “Review: Varieties of Capitalism: And Then There Was One?” *Comparative Politics*, 36(1): 103-124.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2003). “Labour-Sponsored investment funds:

more jobs, more money and job security”ILO Newsroom, Impact Stories, 11, July 2003.

(2004). “Quebec: Labour-sponsored “Solidarity Funds” are Generating Jobs,” *World of Work: The Magazine of the ILO*.

Polanyi, Karl([1944]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Foreword by Robert M. MacIver. Boston: Beacon Press.

Wright, Erik Olin(2010). *Envisioning Real Utopias*. London: Verso.

[기타자료: 신문기사]

매일경제, 2017. 6. 19. “강성노조의 변신? 보건노조 500억 기금 조성해 비정규직 지원” 나현준 기자.

매일노동뉴스, 2018. 6. 7. “사무금융노사 ‘사회연대기금조성’ 산별교섭 상견례” 제정남 기자.

서울신문, 2017. 6. 20. “금속노조 ‘5000억 일자리 연대기금’ 노사 갈등” 김현주 기자.

참여와 혁신, 2018. 10. 4. “금융노사, 2천억 공익재단 출범” 박종훈 기자

프레시안 2004년 6.4. “[민주노총토론회] 노-사, 노동연대기금 취지 공감. 김경락

Labor Solidarity Funds in Quebec and Their Implications to South Korea*

Lee, Joohee**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labor solidarity funds in Quebec, i.e., the FTQ's Fonds de Solidarité and the CSN's FondAction, and explores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ereafter Korea). Korean trade union movements also proposed several labor funds to improve welfare of nonstandard workers, but they were not intended to invest in enterprises. Labor-sponsored investment funds in Quebec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atient capital, forging at least 5 to 7 years of long-term partnership. Before making an investment, the solidarity funds usually undertake a comprehensive social audit to inspect labor relations, governance struc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By doing so, the solidarity funds in Quebec proposed an innovative and democratic way of managing the economy. Although the funds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part of total investment, they are able to enhance the role of social power in the regulation of finance.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Quebec and Korea, growing polar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urgently requires the successful experiment of democratizing finance in Quebec.

Key words: solidarity, labor movements, social economy,
patient capital, social dialogue

투고일: 2019.07.03 | 심사완료일: 2019.08.28. | 게재 확정일: 2019.08.3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of South Korea.

**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